

임태혁 3연패 도전...설 연휴 모래판 후끈

〈금강금〉

2023설날장사씨름대회 24일까지 남녀 체급별 장사전·女 단체전 펼쳐 한국프로탁구리그 20일 재개 주목 배드민턴 안세영은 인도오픈 출동

계묘년 설날에도 스포츠는 쉬지 않고 팬들을 맞이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질 설 연휴 동안 다양한 종목에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길 전망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수놓을 종목별 주요 경기를 살펴본다.

●설날 ‘모래판의 제왕’을 가린다!

전남 영암군 영암체육관에서 2023설날장사씨름대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진다. 남자부 체급별 장사전, 여자부 체급별 장사전, 여자부 단체전 등 3개 세부종목에 걸쳐 27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설 연휴 전날인 20일 여자부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전이 열린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태백장사(80kg 이하)~금강장사(90kg 이하)~한라장사(105kg 이하)~백두장사(140kg이하) 결정전이 잇달아 벌어진다.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예선전부터 준결승전까지는 3전2선승제, 장사 결정전은 5전3선승제로 치러진다. 각각 금강급 3연패와 태백급 2연패를 노리는 임태혁과 문준석(이상 수원시청)이 다시 한번 꽃가마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녹색 테이بل’의 반란 일어날까?

한국프로탁구리그(KTTL)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 전국남녀종합탁



21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질 설 연휴기간에도 스포츠는 팬들과 함께한다. 전통종목 씨름을 비롯해 탁구, 배드민턴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2019년 전북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정전에서 3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던 임태혁. 사진제공 | 대한씨름협회

구선수권대회 기간에 따른 휴식기를 마치고 20일 재개된다. 연휴 기간 중 빅매치는 단연 22일 오후 3시 수원 스튜디오 T에서 열린 미래에셋증권-한국거래소(KRX)의 코리아리그 남자부 경기다. 김택수 총감독과 오상은 감독의 미래에셋증권은 우형규, 오준성, 박규현, 장성일 등 국가대표급 영건들이 대거 포진해 ‘탁구판 어벤져스’로 불린다. 유남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신생팀 KRX도 국가대표 안재현, 황민하 등 쟁쟁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 미래에셋증권과 맞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남녀선수 10명은 21일까지 WTT 컨테너 도하에 출전한다. 이들 외에도 남자부 강동수(한국마사회), 여자부 주전희(삼성생명)가 단식에 나선다.

●‘셔틀콕 스타’ 안세영이 나가신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4위 안세영(삼성생명)은 올해 첫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서 숙적 아파구치 아카네(일본·1위)에게 아쉽게 역전패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일 틈도 없이 곧장 요넥스 인도오픈으로 향해 18일(한국시간)부터 여자단식 경기에 나섰다. 여자복식의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웅(전북은행),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도 금빛 매달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세부종목별 준결승은 21일, 결승은 22일 벌어진다. 여자단식과 복식에서 4강권 이내의 호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스포츠 종합

스포츠동아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9

초등 20일·중등 35일·고교 50일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한다

교육·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 개선방안 발표

지난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줄었던 초·중·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출석인정일수)가 늘어난다.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스포츠혁신위 권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한다. 고교는 2025년까지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인 63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수업에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결석’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교 25일이었다. 2019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는 1인당 5.1일, 중학교는 12.8일, 고교는 20일을 사용했다.

이번 방안은 전 정부 스포츠혁신위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권고에 따라 이행되던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그 대신 학생선수들이 학습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대체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체육계에선 63일이 가장 원하는 인정 일수라는 의견이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확대됐지만 체육계에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른바 ‘정유라 사태’ 이후 교육부는 같은 해 4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에서 ‘스포츠 미투’가 불거지자 교육부, 문체부 등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출범한 문체부 주관 스포츠혁신위는 2019년 6월 학기 중 주중 대회 개최 금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체육계에선 학생선수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12월 정책연구를 하고 교육계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워크숍

17개 시도체육회장·228개 시군구체육회장 참석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8일 충남 소노벨 천안에서 지난해 12월 당선된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17개 시도체육회장, 228개 시군구체육회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임 지방체육회장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간 운영체계 확립 및 체육단체 운영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체육회 조직·예산·관련법 등을 포함한 ‘지방체육회 이해 등 현안사항’ ▲부패 없는 청렴한 체육회 만들기 위한 ‘청렴한 지방체육회장 활동 가이드’ ▲대한체육회 조직 이해를 위한 ‘대한체육회 본부별 업무소개’ ▲대한체육회장·정부 관계자 주재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지방체육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현장을 직접 이끌어 나갈 지방체육회장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바람직한 지방체육 정책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당선자를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지역체육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체육발전 방향을 모색하자”고 했다.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당선인은 각 상위단체의 회장 인준 후 2023년 정기총회일로부터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간 지방체육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계묘년 설을 앞두고 남다른 각오와 희망을 밝힌 남녀 프로골프의 토끼띠 선수들. 왼쪽부터 허인회, 맹동섭, 이가영, 최예림, 박현경. 사진제공 | KPGA-KLPGA

허인회·맹동섭 “멋진 아빠”...이가영·최예림·박현경 “꼭 우승”

토끼띠 골프스타들의 새해 소망

설날(22일)이 다가오고 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ん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계묘년 활약을 다짐하는 토끼띠 선수들의 새해 소망과 다짐을 들어봤다.

예비 아빠 허인회·맹동섭 큰 책임감 여자골프 토끼띠 3총사 우승 목마름

●아빠 되는 허인회·맹동섭 “남다른 책임감”

1987년생 토끼띠인 허인회와 맹동섭은 코리아んと를 대표하는 베테랑들. 둘은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한시적으로 창설된 국군체육부대에서 한술잡을

먹기도 했다. 올해는 각각 아들과 딸이 출산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과 각오가 남다르다.

코리아んと 4승, 일본투어 1승 등 통산 5승을 수확한 허인회는 “2월에 아들이 태어난다. 좋은 성적을 내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며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토끼띠의 해를 ‘허인회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んと 통산 3승의 맹동섭은 재도약을 꿈꾼다. 지난해 부상을 털어낸 맹동섭은 1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4회 포함 7개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며 성공적인 복귀 시즌을 보냈다. “4월에 딸이 태어나는 경사가 있다”는 그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이번 시즌도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가영·최예림·박현경 “더 나은 새해”

이가영과 최예림은 KLPGA 투어의 대표적인 ‘1999년생 토끼띠’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둘은 지난해 희비가 갈렸다. 매년 우승 문턱에서 주저 않아 아쉬움을 샀던 이가영은 10월 ‘2022 동부건설-한국도지신탁 챔피언십’에서 감격적인 데뷔 첫 승 기쁨을 누렸다. 반면 최예림은 작년 마지막 대회였던 12월 PLK 퍼시픽링스코리아 챔피언십을 포함해 3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도 데뷔 첫 승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이가영은 “지난해 꿈에 그리던 우승을 해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부족한 점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면서 “겨울 동안 체계적인 부분과 숏게임을 중점적으로 훈련해 새해에는 더 나은 성적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갖는 대부분 선수들과 달리 국내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최예림은 “올겨울에는 강아지와 함께 쉬면서 힐링하고, 체력 훈련과 퍼트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규투어에서 첫 우승을 하기 전까지 나의 목표는 항상 ‘첫 우승’이다. 지켜봐 달라”고

새해 다짐을 전했다.

2000년 1월생 토끼띠인 박현경은 팬이 유독 많기로 소문난 KLPGA 대표 스타다. 지난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했지만 우승 값증은 풀지 못했다. 2021년 4월 KLPGA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통산 3승을 신고한 뒤 지난해 마지막 대회까지 53개 대회서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 중 최근 49개 대회에서 연속 컷 통과에 성공하며 준우승만 7차례 기록했다.

박현경은 “우승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생긴 시즌이었다”며 “체력이 부족하니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 겨울엔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는 행복하기도 했지만 힘든 날이 조금 더 많았던 것처럼 느껴진다”며 “올해는 행복한 날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